

장기전략리서치부
미래산업팀

뉴스클리핑

분야

내용

부동산

서울 상업용 부동산, 코로나19에도 고성장 투자 시장으로 주목
(한국경제)

- 코로나 사태에도 서울의 상업용 부동산 투자시장은 견고한 성장성을 보여
- 글로벌 부동산 회사 JLL은 서울과 함께 호주의 시드니, 멜버른, 퍼스를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가장 변동성이 적은 시장으로 평가

인프라

중부발전, 2024년까지 4.5조 투자...뉴딜 지원 추진
(이데일리)

- 한국중부발전이 정부의 한국판 뉴딜에 부응하기 위한 투자 계획안 발표
- 비대면 인프라 구축과 그린에너지 전환에 투자를 집중해 7만3,000여 개 이상의 일자리 창출 목표

원자재

경기부양에 원자재 값 ↑ ... 원유·금은, 일제히 급등
(연합뉴스)

- 유럽연합이 7,500억 유로 규모의 경기부양책에 합의하며 국제 유가 상승
- 21일 뉴욕거래소에서 8월 인도분 금은 온스당 1,844 달러로 거래를 마치며 9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

인수합병

이베이, 매매·구인구직 광고 사업 매각
(Who said deal-making was dead?, NYT)

- 전자상거래 업체 이베이가 자사의 매매·구인구직 광고 사업을 92억 달러에 노르웨이 광고 업체 아데비타에 매각
- 이베이는 이번 달을 통해 아데비타의 지분 44%와 현금 25억 달러를 받아

기타

美 SPAC 시장, 상반기 최대 규모 투자 유치
(It has been a huge week for SPAC IPOs. Here's what you missed, Barron's)

- 올해 상반기 미국 SPAC이 확보한 자금이 104억 달러를 넘어서며 사상 최대 규모를 기록
- 빌 애크먼이 추진하는 SPAC은 40억 달러를 목표로 IPO 예정

Benchmark 모니터링

(단위: %)

구분	BM	상승률					
		5일	1개월	3개월	6개월	1년	YTD
부동산	FTSE EPRA/NAREIT Global REITs Index (TR)	-1.1	-1.9	9.2	-24.4	-17.9	-23.1
인프라	S&P Global Infrastructure Index (TR)	4.2	2.1	12.5	-17.8	-11.4	-16.0
프라이빗 에쿼티	S&P Listed Private Equity Index (TR)	3.6	3.8	28.8	-15.9	-0.7	-12.2
헤지펀드	Hedge Fund Research Global Hedge Fund Index	0.3	1.4	5.1	-0.9	3.8	0.2
원자재	S&P GSCI Index (TR)	1.0	3.2	33.5	-30.4	-29.6	-33.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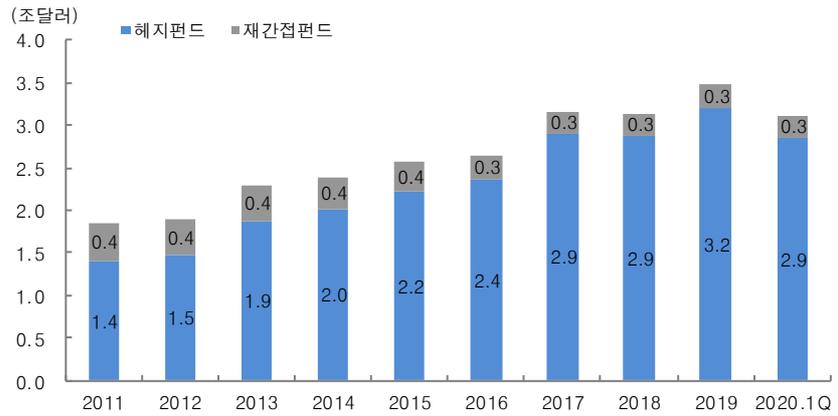
주: 2020.07.21 기준

자료: Bloomberg,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헤지펀드 포트폴리오를 보려면, “13F”에 주목하라

- 헤지펀드는 다양한 전략과 금융기법을 이용해 시장 상황과 관계없이 절대 수익(Absolute Return)을 추구하는 투자 수단이다. 헤지펀드는 주식, 채권, 환, 상품, 실물 자산 등 수익을 낼 수 있는 모든 투자 대상에 차익거래, 롱숏, 이벤트 드리븐, 글로벌 매크로, 행동주의 등 전략을 활용한다. 정형화된 투자 대상이나 전략이 없기 때문에 대체투자로 구분한다.
- Barclay Hedge에 따르면, 글로벌 헤지펀드 운용자산 규모는 약 2.9조 달러(2020년 1분기 기준, 재간접펀드 제외)로 2019년 말 3.2조 달러에서 약 10% 감소했다. 코로나19에 따른 자산 가치 하락이 운용자산 감소의 원인으로 판단된다. 세부 운용 전략별로 나눠보면, Fixed Income 운용규모가 5,960억 달러로 가장 컸으며 Stocks & Bonds Balanced 3,520억 달러, Multi-Strategy 3,330억 달러, Equity Long Bias 3,010억 달러, Emerging Markets 2,120억 달러 순이었다.
- 국내 헤지펀드 시장도 글로벌 트렌드와 유사한 흐름이 나타난다. 한국형 헤지펀드라 불리는 전문 투자형 사모펀드의 설정액은 31.2조 원(2020년 6월 말 기준)으로 34.2조 원(2019년 말 기준) 대비 약 3조 원가량 감소했다. 코로나19와 일부 헤지펀드의 환매 중단 사태가 겹치며 시장이 다소 주춤한 상태이다. 운용 전략별로는 멀티 전략 9.2조 원, 채권형 6.0조 원 PDF 4.7조 원, 이벤트 드리븐 4.4조 원, Repo 3.8조 원 순으로 규모가 컸다.
- 국내 주요 연기금 및 공제회도 대체투자로서 헤지펀드 투자를 실시하고 있다. 국민연금, 한국투자공사, 우정사업본부, 행정공제회, 교직원공제회 등이 있다.
- 국민연금(NPS)은 2016년 11월부터 해외 헤지펀드 투자를 시작했다. 2018년 기준 투자 금액은 약 1.2조 원으로 전체 기금 내 0.2% 비중을 차지하며 운용 수익률은 원화 기준 3.2%이다. 국민연금은 전체 금융자산 중 헤지펀드 목표비중을 0.5%까지 확대할 예정이다. 초기에는 재간접펀드를 통해 출자하는 소극적 방식으로 운용했지만 최근에는 기금 운용본부가 직접 운용하는 싱글펀드 방식을 채택, 위탁 운용사를 추가 선정하는 등 향후 적극적 운용이 기대된다.
- 국부펀드인 한국투자공사(KIC)는 대체투자의 일환으로 2010년부터 헤지펀드 투자를 시작했다. 2019년 기준 전체 자산의 3.3%에 해당하는 51억 달러(한화 약 6.1조 원)를 헤지펀드에 배분했다. 헤지펀드를 운용하기 시작한 2010년부터 2019년까지 연평균 5.28%의 수익률을 기록했다.

그림 1.글로벌 헤지펀드 운용규모(AUM) 추이



자료: BarclayHedge,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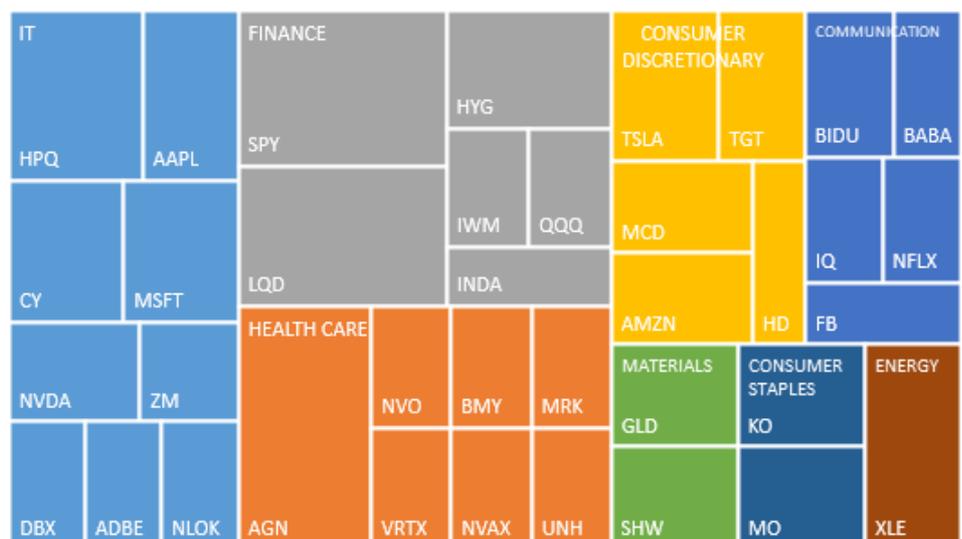
표 1.헤지펀드 전략 유형별 운용규모(AUM)

전략 유형	투자규모(십억달러)	
	2020.1Q	2019.4Q
Fixed Income	596	644
Balanced (Stocks & Bonds)	352	372
Multi-Strategy	333	361
Equity Long Bias	301	353
Emerging Markets	212	259
Equity Long/Short	177	196
Macro	177	200
Sector Specific	168	187
Event Driven	164	179
Equity Long-Only	114	157
Emerging Markets – Asia	101	119
Emerging Markets – Global	84	104
Equity Market Neutral	74	76
Merger Arbitrage	66	72
Other	38	43
Options Strategies	37	42
Distressed Securities	27	31
Convertible Arbitrage	22	23
Emerging Markets – Latin America	9	14
Emerging Markets – Eastern Europe	7	10

자료: BarclayHedge,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 글로벌 헤지펀드들의 투자내역은 헤지 펀드들이 미국 증권 거래 위원회 (Securities and Exchange Commission, SEC)에 제출하는 '13F' 보고서를 통해 알 수 있다. 최소 1억 달러 이상을 운용하는 헤지펀드나 운용사들이 매 분기가 지난 후 45일 이내 의무적으로 포지션을 공개하도록 하는데, 2분기가 지나면서 글로벌 헤지펀드들의 투자자산 보유 현황이 발표되고 있다. 시차를 두고 이들의 포지션을 확인하는 것이긴 하지만, 글로벌 헤지펀드들의 분기별 투자 활동 변화를 확인할 수 있다는 점에서 유용하다.
- 다만, 헤지펀드는 롱숏 전략을 통해 공매도(Short)를 하기 때문에 투자 기업에 대해 롱 포지션을 가지고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이는 회전율(Turnover)로 확인할 수 있으며, 투자하는 기업 또는 상품의 회전율이 낮다면, 헤지펀드가 매수에 중점 (Long -biased)을 두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AUM 상위 헤지펀드들의 1Q20 롱 포지션을 살펴보면 IT, 금융(주로 지수, 채권 ETF가 포함), 헬스케어 기업이 가장 많았다. 올해 1분기에 글로벌 헤지펀드에서 이탈한 자금이 330억 달러로 금융위기 이후 최대 규모였지만, 이 중에도 롱포지션으로 대응한 분야가 있었다. 주로 코로나19 이후 주목받고 있는 비대면 소프트웨어와 바이오· 제약 분야의 비중이 증가했는데, 특히 성장 기업들에 주목하는 경향이 있었다. 헤지펀드 보유 비중이 4Q19 대비 1Q20에 증가한 상위 기업은 IT에서 아마존(+4.1%), 마이크로소프트(+3.5%), 엔비디아 (+1.9%), 헬스케어에서 유나이티드헬스(+0.5%), 에브비(+0.4%)이다.
- 2Q20 13F 보고서는 7월 22일 기준 77곳의 헤지펀드에서 제출했다. 아직 AUM 상위 헤지펀드들이 발표하기 전이지만, 지금까지 발표된 중형급 헤지펀드의 13F 특징은 기술주를 대표하는 마이크로소프트(MSFT), 애플(AAPL), 아마존(AMZN)과 금 관련 상품의 비중을 축소하고, 헬스케어 업종에서 존슨앤존스(JNJ), 비대면 서비스로 전자결제 기업들인 마스터카드(MA), 페이팔(PYPL)의 비중을 확대했다는 것이다.

그림 2.1Q20 13F AUM 상위 헤지펀드별 TOP BUYS



주: AUM 상위 헤지펀드(2019년 기준) : Bridgewater, Renaissance Technologies, Man Group, AQR Capital, Two Sigma Investments, Millennium Mgmt, Elliott, BlackRock, Citadel.
 자료: sec.gov,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Compliance Notice

금융투자업규정 4-20 조 1 항 5 호사목에 따라 작성일 현재 사전고지와 관련한 사항이 없으며, 당사의 금융투자분석사는 자료작성일 현재 본 자료에 관련하여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당사의 금융투자분석사는 본 자료의 작성과 관련하여 외부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을 받지 않고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였습니다. (작성자: 미래산업팀)

본 자료는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배포되는 자료입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Research Center 의 추정치로서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정확성이나 완벽성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이용하시는 분은 동 자료와 관련한 투자의 최종 결정은 자신의 판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